

안철수 “지방 예산·권한 지역에 위임해야”

“일부 정치인 신당후보 출마 사전 얘기 없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조사·NLL 별개… 국조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문제를 시혜적으로 (해결)해서 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출입 지역언론사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며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위임하고 우선순위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밝혔다.

최근 김효석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안철수 신당’ 옷을 입고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안 의원은 “사전에 저 또는 우리와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면서도 “그분들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새정치’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및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

를 낼 것인지와 관련해선 “사람이 중요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 공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각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해서 성과를 만들어 낸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릇(신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지금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과 관련, 다음 달 5일 대선을 시작으로, 6일 창원, 12일 전주에서 열리며, 수도권에서도 따로 한 차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

른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안 의원은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합의대로 가면 되고, NLL 문제는 따로 치열하게 논의하면 된다. 이걸 섞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가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 대

해선 “지금 나온 것만 보면 발췌본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단단한 판단 기준은 못 된다. 다만, (발언록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원수의 비공개 대화를 공개하는 게 국역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각한 상황이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교부,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소 ‘모르쇠’ 일관”

박주선·시민모임 비난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모르쇠’로 일관해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부가 고령의 나이에 한일 양국을 오가며 힘겹게 소송을 벌이는 할머니들의 도움 요청에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며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박 의원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주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외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 재판에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국 간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

원해 달라라는 요청이었다”며 “답변내용만으로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성이나 할 소리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모임도 지난달 25일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외교부에 질의문을 보냈다가 지난 13일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산 고법 재판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3월12일 A4 용지 6장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전 60주년 ‘나라사랑 콘서트’ 향가사자의 달이자 정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나라사랑콘서트 Thanks♡Festival’이 열렸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사)육영수 여사 생가 및 탄신 숭모 제례 보존회는 21일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김효석 “민주, 호남서 갑노릇… 잘못은 몰라”

광주서 민주당 비판… “호남민에 선택 꼭 줘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단체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효석 전 의원이 광주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밤 광주 동구 학동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민주당은 호남 독점 정당으로 갑 노릇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뭘 잘못했는 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탄을 날렸다.

이날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초청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 전 의원은 “당

선 만을 목표로 계파 줄서기와 기득권 유지에 열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정치의 몰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기득권에 안주하면 영구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호남에서 30년 간의 민주당의 독점적 지위는 파괴됐다. 호남 지역민에게도 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남은 항상 낮은 것보다 새로움을 추구했다”며 “호남이 바뀌면 영남도 바뀌고, 그 변화의 시작은 호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며 우회적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새 정치를 강조하면서 ‘안철수 신당행’과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은 또 “저는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낙후된 호남의 새로운 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근 내비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오는 25일 경제전문가 등 출향 인사 30명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전남발전 미래구상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민선5기 장애인공약 합격점

15개 공약 중 80% ‘우수’

국 평균 75%보다 높은 실적이다. 광주는 특히 특·광역시 중 장애인 등록 수(6만8534명) 대비 장애인 공약수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한국장애인총연맹과 사·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내놓은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는 총 15개의 장애인 공약을 추진중이며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 ▲장애인 관련 택시 운영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교통사고 전국최저 수준 감축 등 3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남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9개 공약에서 90점 이상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우수 이상이 80%로, 전

국 평균 75%보다 높은 실적이다. 광주는 특히 특·광역시 중 장애인 등록 수(6만8534명) 대비 장애인 공약수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광주와 장애인 수가 비슷한 (7만1647명) 대전의 공약수는 9개에 불과했다. 전국 사·도 평균 장애인 공약수는 8.1개로, 서울(22개)과 부산(18개)에 이어 광주가 3번째였다.

광주시 이명순 노인장애인복지 담당은 “광주는 민선 5기 3년동안 장애인분야 예산을 53%(399억원) 증액하는 등 장애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타시도에 비해 장애인 공약이 많은 탓에 완료율이 20%에 그치고 있지만 남은 1년동안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서 박정희·육영수 추모제 처음 열려

광주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추모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사)육영수 여사 생가 및 탄신 숭모 제례 보존회(이하 보존회)는 지난 21일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호남지회(이하 호남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광주시·경북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추모제를 진행해온 보존

회는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호남지회 발대식을 겸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모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어머니(육영수 여사)는 어렵던 시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며 병사를 몸으로 실천하셨다”며 “세상을 떠나신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추모제를 통해 국민을 먼저 생각했던 두분의 마음이 곳곳에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동방조계종은 조계종 산하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파는 아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삼희 공인중개사

※ 모든 부동산 급매매

- 급매처분상담
- 법인소유물건
- 지분소유물건
- 미준공건물
- 경매중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배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톨14개(주택임용)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윤천역 2분, 신축 3층, 톨 8개(주택임용)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주택임용)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택임용)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7억 5천만

상가매매

- ☆상가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 3천, 월 130만) 모던업종가능
-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이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원은행 뒤 300세대 모이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 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APT)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빌)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자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은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은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부지 등 나누시 송촌동 동산대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 녹지 전 16,200㎡ 매가 9억 8천만원 점근선리,투지적합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풍양지구 인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매가7억9천(가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부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지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중앙공인중개사

건물매매

총장로 총장 피출소 인근 대지 700㎡ 건물 3,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형 브랜드 매장 적합

대지, 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정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333㎡(약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 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 월2000만원 매23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 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사육,정려(예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육)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5천(식당,유흥노래방))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육,전시장)
- 마복동생선녹지 도로접 895㎡ 매가11억원(식당,사육)
- 쌍촌동 윤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1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162억원(상가,문양투지적합)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